

2020년 2월 2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속 급락 지속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세계적인 대 유행 가능성에 대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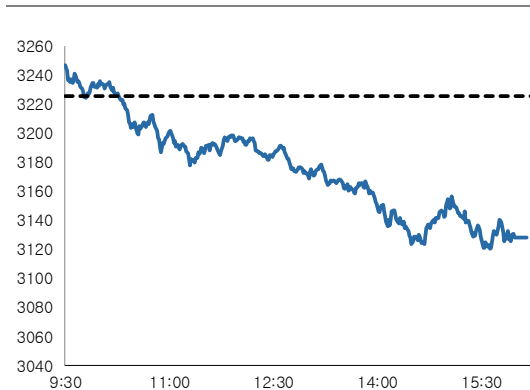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요인: 경기둔화, 고 밸류

미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상승 출발. 그러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19 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하락 전환.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지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점도 부담. 이런 가운데 래리 커들로가 “미 경제는 견고해 연준은 금리인하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한 이후 하락폭 더욱 확대된 점도 특징(다우 -3.14%, 나스닥 -2.77%, S&P500 -3.03%, 러셀 2000 -3.45%)

상승 출발했던 미 증시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 이후 하락 전환. CDC 는 “이번 질병으로 삶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주장 했으며, 이는 ‘팬더믹’ 즉 세계적 대 유행 우려를 높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로 인해 실적 경고를 언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며 2020 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이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며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폭을 확대하게 만든 주요 요인. 실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6.49%)은 두달 전 예측한 실적 전망을 폐지. 이번 질병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망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마스터카드(-6.71%) 같은 카드 회사들도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졌다는 평가 속 급락.

전반적으로 시장은 코로나 19 를 빌미로 경기 둔화 및 실적 부진 우려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고 보고 있음. 실제 미 주요 지수는 지난 13 일 고점 대비 10% 가까이 하락했으며, 이를 주도한 섹터는 상승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한편, IMF 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 19 로 글로벌 GDP 성장을 하향 조정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미 10 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6bp 하락하며 지난 2016 년 7 월 기록했던 사상 최저치(1.325%)를 하회하기도 했음. CME FedWatch 는 3 월 연준의 금리인하 확률을 28%, 4 월은 60%, 6 월은 80%로 상향 조정해 금리인하 기대를 높였으나, 래리 커들로가 미국 경제는 견고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실망감이 유입되며 낙폭 확대. 결국 시장은 코로나 19 우려가 높아진 이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그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하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 밸류우려 완화 시기 까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03.61	+1.18	홍콩항셱	26,893.23	+0.27
KOSDAQ	656.95	+2.76	영국	7,017.88	-1.94
DOW	27,081.36	-3.15	독일	12,790.49	-1.88
NASDAQ	8,965.61	-2.77	프랑스	5,679.68	-1.94
S&P 500	3,128.21	-3.03	스페인	9,250.80	-2.45
상하이종합	3,013.05	-0.60	그리스	833.81	+1.89
일본	22,605.41	-3.34	이탈리아	23,090.44	-1.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6%

JP모건(-4.46%), BOA(-5.04%), 웰스파고(-2.80%) 등 금융주는 경기 둔화 우려 속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하락했다. 마스터카드(-6.71%), 비자카드(-5.23%), 페이팔(-5.82%) 등 카드 및 결제 회사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실적 부담이 높다는 평가가 유입되며 하락했다. 특히 마스터카드는 경영진 교체 여파로 낙폭이 더 컸다. 신발 제조업체 울버린 월드 와이드(-4.38%)는 코로나가 부정적인 영향을 줘 연간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6.49%)은 코로나 이슈의 불확실성을 빌미로 연간 전망치를 폐지하자 급락했다. 델타에어라인(-6.16%) 등도 동반 하락했으며, UPS(-4.66%), 페덱스(-5.97%) 등 물류 회사들도 부진했다.

마이크론(-5.29%), 인텔(-3.29%), 브로드컴(-3.06%) 등 반도체 관련 주 및 부킹닷컴(-3.68%) 등 여행주, 라스베가스 샌즈(-3.30%) 등 카지노 회사들, 힐튼(-4.94%) 등 호텔 업체. 엑손모빌(-3.83%), 코노코필립스(-4.52%) 등 에너지 업종은 코로나 여파로 부진했다. 특히 마이크론은 BOA가 코로나로 인한 메모리 칩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유나이티드 헬스(-5.18%), CVS헬스(-5.29%) 등 헬스케어 업종은 버니 샌더스 후보의 약진으로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27%	대형 가치주 ETF(IVE)	-3.18%
에너지섹터 ETF(OIH)	-4.19%	중형 가치주 ETF(IWS)	-3.46%
소매업체 ETF(XRT)	-3.35%	소형 가치주 ETF(IWN)	-3.37%
금융섹터 ETF(XLF)	-3.39%	대형 성장주 ETF(VUG)	-2.82%
기술섹터 ETF(XLK)	-3.20%	중형 성장주 ETF(IWP)	-3.2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46%	소형 성장주 ETF(IWO)	-3.51%
인터넷업체 ETF(FDN)	-3.09%	배당주 ETF(DVY)	-3.43%
리츠업체 ETF(XLRE)	-2.5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11%
주택건설업체 ETF(XHB)	-3.5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5%
바이오섹터 ETF(IBB)	-2.54%	미국 국채 ETF(IEF)	+0.28%
헬스케어 ETF(XLV)	-3.03%	하이일드 ETF(JNK)	-0.79%
곡물 ETF(DBA)	-0.06%	물가연동채 ETF(TIP)	-0.17%
반도체 ETF(SMH)	-2.88%	Long/short ETF(BTAL)	+0.8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69.92	-4.34%	-8.98%	-11.47%
소재	352.25	-4.30%	-7.10%	-4.12%
산업재	655.63	-4.03%	-7.50%	-5.17%
경기소비재	968.73	-2.60%	-7.16%	-0.71%
필수소비재	636.73	-1.75%	-3.91%	-2.24%
헬스케어	1,129.79	-2.95%	-6.25%	-4.60%
금융	476.22	-3.41%	-6.92%	-4.04%
IT	1,617.18	-3.18%	-9.26%	-3.20%
커뮤니케이션	178.45	-2.41%	-7.18%	-3.69%
유틸리티	343.93	-2.16%	-4.23%	-0.66%
부동산	249.64	-2.57%	-3.73%	+1.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적극적인 대응 외면 받을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9%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3,095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6.75pt 하락한 277.9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5.3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데 힘입어 상승 했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전 9 시 기준 60 명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이슈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 경기둔화 우려 등을 감안 상승폭이 확대되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에 기인한 미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결국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JP 모건이 한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 개월 후에 1 만명에 달할 수 있으며,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이번 사태로 더 하향 조정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금리인하 및 추경 편성으로 경기 둔화를 완화시켰던 점을 감안 정부가 준비한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그렇지만, 미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교역 감소 등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코스피 12 개월 fwd PER 5 년평균인 9.9 배를 감안 지수 조정은 1,960pt 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도체 업종 등 일부 기업이익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2,000pt 초반에서 지지 받을 것으로 전망돼 미 증시에 비해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제조업 지표 부진

2 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30.4) 보다는 높은 130.7 을 기록했으나 예상(132.5)을 하회했다. 설문 문항이 고용과 관련되어 있던 점을 감안 코로나 이슈가 아직은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그나마 견고한 결과였다. 한편 현재 여건지수는 전월(173.9) 보다 하락한 165.1 을 기록했으나, 기대 지수는 전월(101.4) 보다 크게 개선된 107.8 로 발표되었다.

2 월 리치몬드 제조업지수는 전월(20)이나 예상(13)을 크게 하회한 -2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에서는 신규수주(13→-10), 고용지수(20→8) 등이 크게 하락했다.

미 12 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2.9%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50 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수요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특히 WTI 기준 2 주만에 50 달러를 하회했다. 한편, 리비아 내전으로 공급 감소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 부진 영향이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매물이 출회 되었으며, 미국의 원유 재고가 5 주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 일부 경제지표 부진 또한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19 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특히 10 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 때 6bp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래리 커들로 는 미국 경제가 견고해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코로나는 성장에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금리 하락폭이 소폭 감소했다.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8 배)보다 낮은 2.45 배, 간접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48.6%) 보다 낮은 46.2%를 기록했다.

금은 경기 둔화 우려 불구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 불구 달러 약세에 힘입어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은 여전히 코로나 이슈로 휴장이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9.90	-2.97	-4.57	Dollar Index	98.979	-0.38	-0.46
브렌트유	54.95	-2.40	-4.85	EUR/USD	1.0883	+0.27	+0.84
금	1,650.00	-1.59	+2.89	USD/JPY	110.14	-0.52	+0.25
은	18.268	-3.65	+0.19	GBP/USD	1.3004	+0.62	+0.05
알루미늄	1,703.00	+0.24	-0.99	USD/CHF	0.9759	-0.33	-0.74
전기동	5,685.00	-0.07	-1.52	AUD/USD	0.6601	-0.06	-1.27
아연	2,029.00	-0.83	-5.41	USD/CAD	1.3287	-0.05	+0.20
옥수수	376.50	+0.07	-2.84	USD/BRL	4.3885	-0.03	+2.25
밀	537.00	+0.42	-4.96	USD/CNH	7.0282	-0.11	+0.30
대두	888.25	+0.65	-1.55	USD/KRW	1210.30	-0.81	+1.75
커피	108.50	+1.50	-0.32	USD/KRW NDF1M	1215.32	-0.28	+2.09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340	-3.01	-22.06	스페인	0.210	+0.40	-7.50
한국	1.440	+2.00	-11.50	포르투갈	0.233	+1.10	-5.00
일본	-0.104	-4.80	-4.40	그리스	1.047	+5.40	+8.20
독일	-0.512	-3.10	-10.50	이탈리아	0.986	+2.00	+5.70